

구조적 산업순환 '적용' 무력의 시대



기획시리즈③ - 공황진입과 관련한 한국경제에 대한 논의(中)

100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또 하나의 '위기론'은 인플레이와 수직적자의 결합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것은 인플레이 성장 정책의 귀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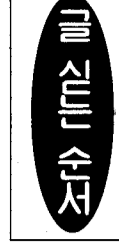
89년 이래 성장의 원동력이 내수부진이었다는 것은 쉽게 확인된다. 민간소비도 산업순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89년 4/4분기 이후에는 총고정자본의 형성이 최종 소비자를 상회함으로써 투자가 이 시기의 성장을 주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임시투자자세 공제제도의 도입, 외화대출 한도의 폐지 및 설비자금 지원을 위한 외화대출의 확충, 1조원의 수출 설비 자금지원, 6,500억원의 자동차 설비 자금 지원, 첨단산업 및 자동차부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 연수의 단축 등을 통해 투자를 지원했다.

이렇게 해서 총통화의 공급속도는 빠르게 증가했는데 이 자금들은 주로 국내 민간 신용에 의해 충당되었다. 즉 국가의 자금 지원정책에 따라 국내 은행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아들인 국민의 돈을 대기업에 집중적으

로 몰아넣은 관계에 있는 것일까. 1991년 1/4분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39억 3천8백만 달러로 90년 전체의 적자 규모 21억 9천7백4십만 달러를 이미 넘어섰으며 2/4분기에는 19억1백70만달러, 3/4분기에는 약 10억 달러를 기록해서 흑자기조의 정착은 커녕 적자구조가 자리잡은 것처럼 보인다. 우선 수출증가율을 보면 89년 사상 최저 수준인 2.8%에서 90년 4.8%로 증가한 후, 91년 1/4분기, 2/4분기에는 10%를 넘어 3저 호황기의 20-30%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적, 간접적으로 한국 생산

상화하는 품목은 원유, 철강, 기계류이다. 이 중 철강의 경우 제조업에 들어가는 고급 강판과 건설 경기 과열에 따른 선저 및 봉강 수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기계류 수입에서는 항공기의 수입 증가율이 가장 크지만 일반기계 수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계류 무역적자는 전체 수지 적자와 맞먹을 정도인데 이렇게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외화대출 확대 조치 및 자동화설비에 대한 조세 감면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국산화가 가능한 기계를 의뢰하고 수입을 하기 때문이다. 국내 금리보다 훨씬싼 달러로 외화대출을 받아 일본산 첨단 시설재, 일반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대기업에 훨씬 유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일 적자가 수직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89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신용 공급의 확대를 통해 국내 투자 중심의 성장을 꾀한 결과가 현재의 인플레이션과 수직적자인 것이다.



1. 경제공황의 이론적 고찰
2. 3. 4. 공황진입과 관련한 한국경제에 대한 논의(上·中·下)
5. 좌담

여신 규제 완화 의사를 밝힌 정부는 7월1일 5대 기업 그룹의 대출 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여신관리에서 제외되는 주력 업체 대출금이 타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여기서 주력업체로 선정되어 대출관리에서 제외되는 72개 기업의 대출이 30대 그룹 대출에서 44.5%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결국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의 절반에 이르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돈에는 꼬리표가 없는 것이며 정부가 이를 사후에 확인할 만한 능력도, 나아가서 의지도 없는 것이다.

노동자 탄압에 의한 잉여가치를 회복에서 몰아내려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자기 나라 침체를 수출의 진흥에서 찾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에 대한 각종 개방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쌀시장 개방 압력은 한국 농민에게 대한 가장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정책과 무모한 주택건설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은 조금도 기가 죽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92년의 선거로 인해 더 상승을 부릴 전망이다.

이러한 분석만으로 우리는 전 민중계층의 반인플레이 투쟁, 그리고 농민의 쌀시장개방반대 투쟁,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투쟁이 금년의 민중운동의 핵심이 될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다. 한국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 속에서 이러한 투쟁이 실제로 잡아 내야 할 구체적인 목표와 전술의 개발이 중요하다. 근거 없이 공황이 온다, 온다고 하면 되풀이하는 것이 경제분석은 아닌 것이다. 더구나 88년부터 92년까지(현재의 정세로 보아서는 93년까지) 5년이나 지속되는 공황이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이라고 우긴다면 할 말이 없다. 정부와 자본이 말하는 세번의 '위기'는 산업순환의 연이은 전개와 정부 정책이 어우러진 현상일 뿐이다.

우리가 산업순환 상의 경제위기, 즉 공황을 엄밀하게 산업생산의 위축과 이윤율의 저하로 정의한다면 88년말, 89년 초의 약4개월간의 연속적인 생산 위축이 이에 해당될 뿐이다. 다음으로 현재의 국제수지 적자폭의 확대를 선진국과 아시아의 뉴닉스 양측에 대한 가격 및 기술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구조적 위기의 발현이라고 보는 것은 일견 그럴 듯 해 보이지만 그 자체의 동태성 또한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1985년의 한국은 호황 시절의 한 논점은 당시의 수직적자-상-현재와 똑같이 국제분업-상의 경쟁 상실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3년간의 이른바 '3저 호황'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설명이 산업순환을 규정하는데 대단히 무력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가 보이는 10년 주기의 산업순환에서 현재는 명백하게 회복국면에 들어서 있으며 내년에 있을 침체는 내용상으로 인플레이 성장정책의 모순의 발현이며 동시에 85년과 같은 호황 이전의 소침체일 것이다.

정태인
(서울대 박사과정·경제학)



이들 위주의 대대적인 주택건설을 행했다. <90년 초 전월세 파동>에 따라 중산층이 동요하자 정부가

모순된 인플레이션 성장정책, 경제 위기론의 주범

정부 노동자 탄압으로 잉여가치 몰아내려 몰아내려 찾아

'공황' 규정 보다 당면 현실 속 민중의 실천지침 모색돼야

있다. 이 총고정자본이라는 것은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로 나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90년의 자본 형성은 건설투자가 주도한 것이었다. 90년 초 전-월세 파동에 따라 중산층이 동요하자 정부가 이들 위주의 대대적인 주택 건설을 행했다는 것은 우리의 기억에 새롭다. 한편 91년은 이러한 건설투자가 어느 정도 위축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설비투자가 건설투자를 앞지르고 있다. 결국 91년의 경제 성장은 건설 및 설비투자에 힘입은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바로 수직적자를 설명해 준다.

문제의 핵심은 투자자금의 조달 방식이다. 89년 '위기론' 이후 정부는 투자세액의 10%에

로 빌려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자금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기존의 산업상의 불균형은 더욱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물가 상승이 전 산업에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건설 투자이다. 주택 200만 호 건설은 87년부터 들쭉거리던 부동산 투기에 불을 질렀다. 엄청난 건설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건설 자재난, 인력난을 불러왔고 이것이 이른바 제조업 인력난을 가져왔던 것이다.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건설 자재난, 인력난을 불러왔고 이것이 이른바 제조업 인력난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던 이러한 상황과 수지

의 70%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수출이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등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일 수출 역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주원인은 일본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아세안과 기업 내 분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일본에서의 시장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는 수입 증가인데 그 내용은 산업별 수입 현황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다. 전 산업의 평균 수입증가를 25.2%를

무모하고 실제로 노동자계급에게는 그림의 떡인 주택200만호 건설투자는 이 과정을 두배, 세배 증폭시켰다. <III. 대기업 위주 산업정책, 금융정책의 귀결> 정부는 수직적자의 원인을 제조업 경쟁력 약화 면에서 찾고 수출 자금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쪽을 채택했다. 3월14일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은 일반적 기술개발, 산업인력 공급 방안, 공공용지 공급 방안으로 대부분의 내용이 채워져 있지만 사실 이 대책의 핵심은 이후 실업률 증가를 막고자 하는 데 있다. <IV. 92년 민중운동의 방향>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대자본에게 제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는 한편 정부는 경제 위기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다는 듯 30분 일 더하기 운동, 총액임금제의 도입 시도 등에서 열심히 나타나듯이

및 품위로 선택하는 - <<<<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쥘로 개최되는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HANKOOK Endurance Championship이 그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나다의 Westwood Motor Sports Park - 매년 그곳에서 『한국 인듀어런스 챔피언십』이 개최됩니다. 이 대회에서 세계의 유명 레이서들은 입을 모아 한국타이어의 탁월한 품질에 격찬을 보냈습니다. 또한 캐나다 포뮬러 1600 (Formula 1600) 레이스에서는 한국타이어를 장착하고 달린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이어를 장착하고 출전한 자동차들을 제치고 당당하게 최고 기록을 수립하며 우승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스피드와 스릴이 넘치는 자동차 경주대회는 세계의 자동차와 타이어 성능의 시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도 그 기술력과 품질을 세계에 널리 과시하고 새로운 타이어 성능을 연구 비교 테스트하는 방법의 하나로 세계의 각종 자동차 경주대회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명 타이어들도 당당히 어깨를 겨루며 품질과 성능의 우수성으로 앞서가는 한국타이어 - 지구촌을 누비는 한국인의 자부심입니다.



HANKOOK TIRES equipped on Canadian Formula 1600 race car.